

03

FTA ANALYSIS

한-중 FTA 발효 전후 교역변화와 시사점

- FTA 활용현황과 중국의 관세율 분석을 중심으로





한-중 FTA 발효 전후 교역변화와 시사점

- FTA 활용현황과 중국의 관세율 분석을 중심으로



권민경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장

1. 들어가며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어 올해 이행 10년차를 맞이하였다. 금년에는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던 관세인하 품목들이 모두 전면 철폐됨으로써 한-중 FTA를 통한 양국의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세계시장 확대를 위해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정책을 꾸준히 실현해왔다. 그 결과 FTA 발효국 대상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81.8%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수 있었다.

이와 같이 FTA 발효이후 대세계 교역은 양적 확대를 이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미국의 대중국 견제로 촉발된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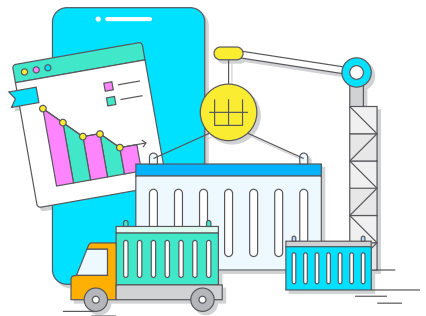
작년 우리나라의 대미교역은 무역수지 흑자를 이뤘으나 대중 교역은 적자를 기록하여 정부 및 산업계가 대중교역의 지각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중 교역에 있어 그동안 꾸준히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대중 수출이 지속 감소하면서 작년에는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중 FTA 발효 전후 대중교역 변화 현황과 요인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FTA 교역의 변화도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한-중 FTA 이행 10년 차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한-중 FTA 활용성과를 평가해보고 향후 FTA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지 미리 검토하여 기업들의 대중수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FTA 발효 전후 한중 교역 현황 분석

(1) 발효전후 총 수출입 변화 분석

대중 교역은 FTA 발효 전 5년간 평균 총 교역액 약 2,255억 달러 수준에서 발효후 현재까지 평균 2,606억 달러로 15% 증가하였다. 2011년 대중국 수출은 1,342억달러 수준으로 총교역의 약 61%를 차지하고 수입은 864억 달러로 총교역의 39%를 차지하여 무역수지 흑자 폭이 큰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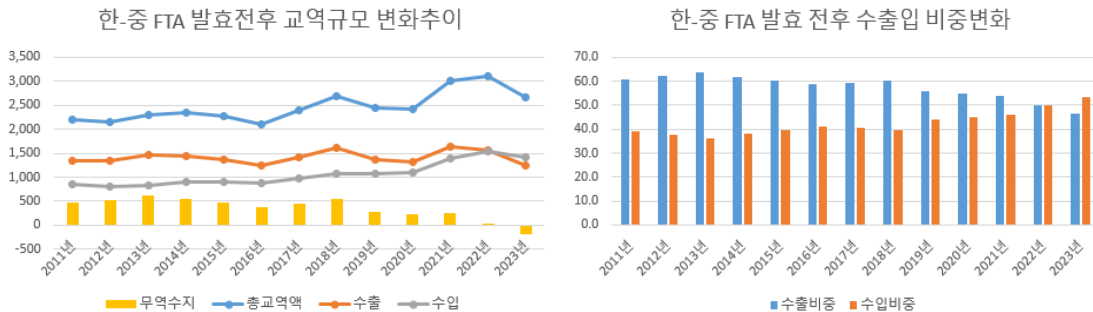




FTA 발효 이후 5년간은 무역수지 흑자 폭이 큰 상태로 유지되었으나 2019년부터 수출 비중이 줄고 수입비중이 커지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22년부터는 총교역액 대비 수출·수입의 비중이 5:5의 수준으로 변화하면서 간신히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였고, 2023년에는 수출비중 47%, 수입비중 53%로 전환되면서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림 1 한-중 FTA 발효전후 교역변화 추이

(단위: 억달러, %)



최근 2년간 연속적으로 대중교역에서 수출이 하락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중국의 소비시장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공통적으로 꼽고 있다.

우선 중국경제가 2016년 이후 중속 성장 기조로 전환되고 코로나 봉쇄를 겪으면서 수요가 위축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총수입이 둔화한 특징이 있다. 더불어 최근 중국의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더욱 수요 위축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부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들이 미국의 대중국 규제정책을 피하기 위해 아세안과 멕시코로의 직접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 단순 임가공 무역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중국의 생산요소 가격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은 최근 5년간 베트남의 1위 투자국 지위를 유지하고 2022년은 대멕시코 직접 투자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며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산업별 교역 변화 분석

한중 FTA 발효 이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0대 산업별 수출입 교역 추이를 살펴보면 수입우위, 수출우위, 수출입 경합 산업군으로 유형 구분을 할 수 있다.

대중국 수입 비중이 큰 산업군은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섬유류, 잡제품으로 1차상품과 소비재 상품군 중심으로 나타난다. 다만 섬유류와 생활용품의 경우 수출 규모는 연도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입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반대로 농림수산물과 잡제품의 경우 FTA 이행 장기화가 될수록 중국으로 수출하는 규모도 지속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큰 산업군은 광산물, 화학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으로 확인된다. 이 산업들은 전통적으로 대중교역에서 수출 강세를 유지했으나 최근 3년 동안은 지속해서 수출 하락추세를 보이고 수입은 증가추세를 보인다. 이는 중국의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한국산 중간재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으로 대중교역에서 수출우위 산업군에 속하던 기계류와 전자·전기 산업이 FTA 발효 이후 수출입 비중이 비슷한 규모로 전환되어 수출입 경합이라는 큰 변화를 보였다. FTA 발효 초기에는 두 산업 모두 수출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수출 규모는 감소하고 수입 규모가 심하게 증가하여 대중교역에 있어 무역구조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후술하는 가공 수준별 수출입 변화와 중간재의 기술 수준별 수출입 변화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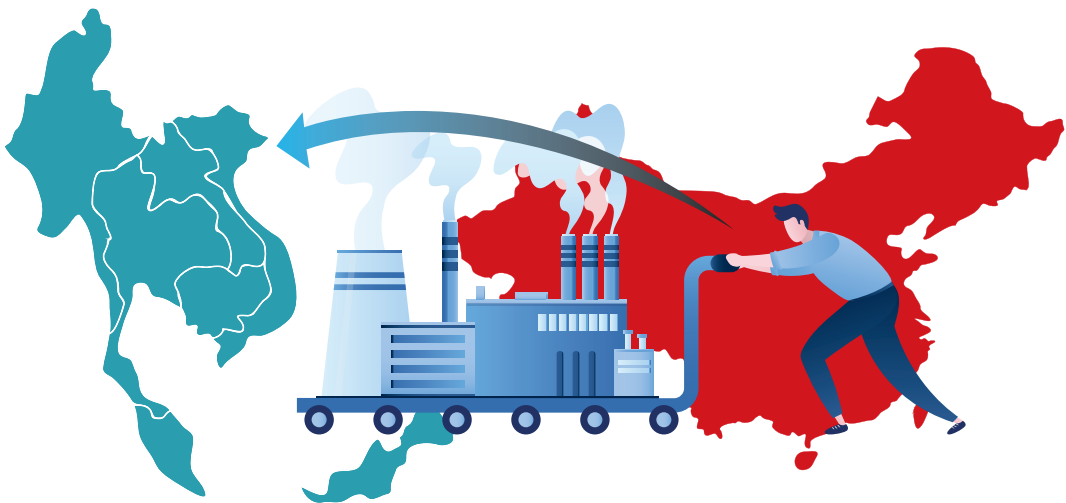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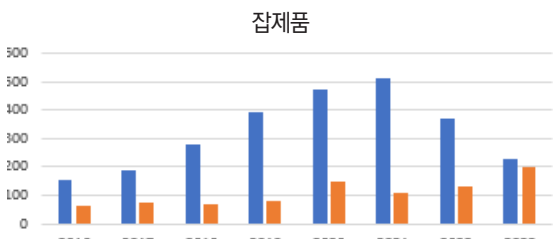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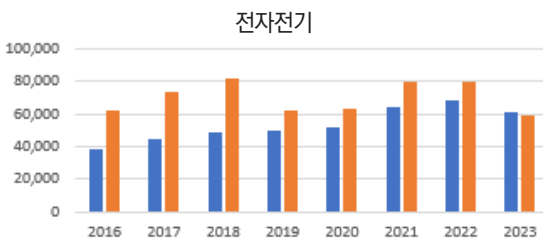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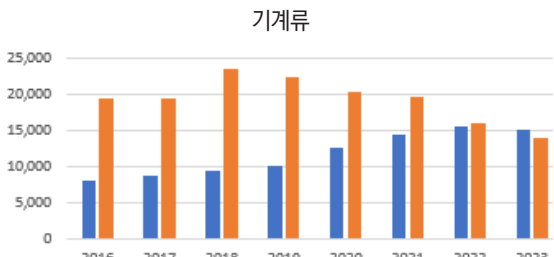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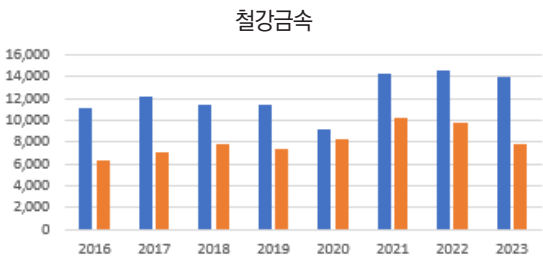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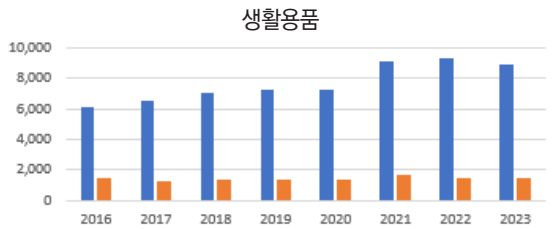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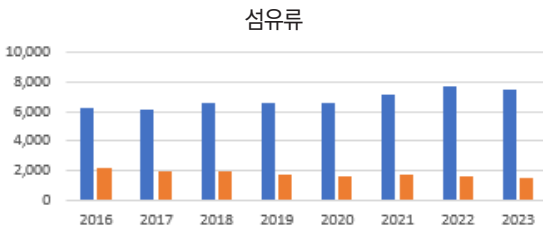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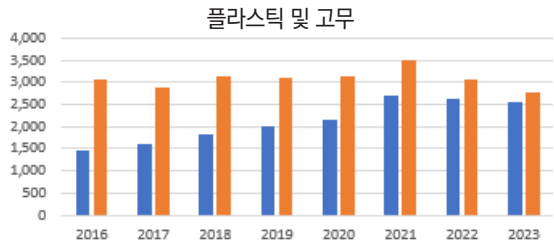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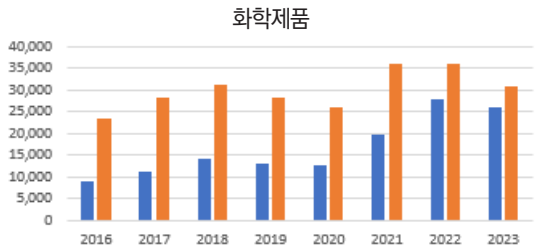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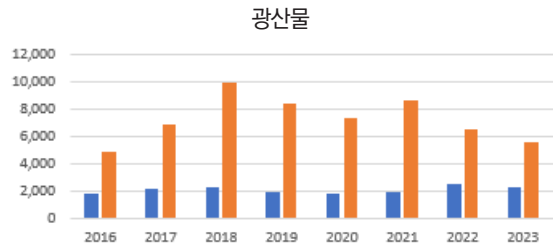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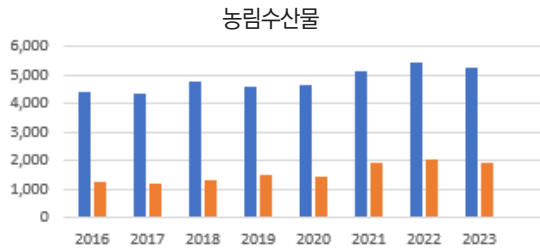




그림 2 FTA 발효 후 산업별 대중교역 현황

■ 수입 ■ 수출 (단위: 백만 불)



자료: KITA 통계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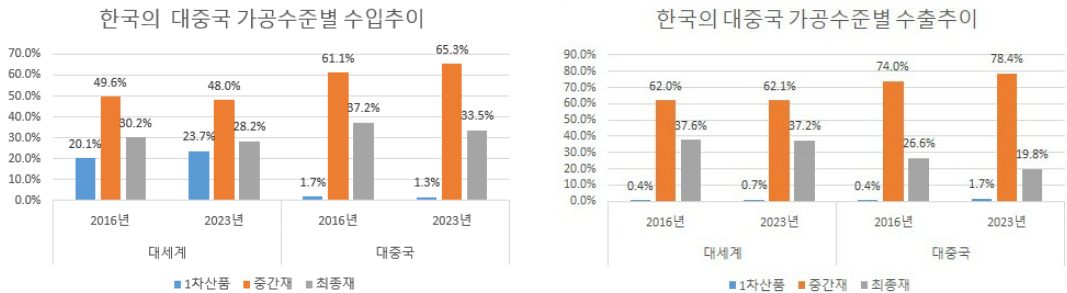
(3) 가공 수준별 교역 변화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입을 가공 수준별로 검토한 결과, 1차상품의 수입이 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2016년 대비 2023년 3.6%로 가장 큰 편차를 보였다. 하지만 대중 수입은 중간재 수입이 2016년 대비 2023년 4.1%로 가장 큰 편차를 보여 수입 증가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78.4%로 FTA 발효 직후인 2016년 대비 5.5% 상승하였다.

결국 가공 수준별 대중교역은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수출의 증가 폭이 수입보다 큰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3 한국의 대중국 가공수준별 수출입 추이



자료: KITA 트레이드 포커스 24년 24호

(4) 중간재의 기술 수준별 교역 변화

앞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중간재 상품을 중점적으로 수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중간재 품목을 다시 기술 수준별로 구분하여 대중교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출입 모두 최근 원자재가공품과 고위기술 품목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의 경우 원자재가공품의 증가율이 1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위기술 품목이 7.1%로 나타나 최근 중국으로부터 원자재가공품의 수입증가 추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체로 전기차 등에 활용되는 2차전지 원자재의 국내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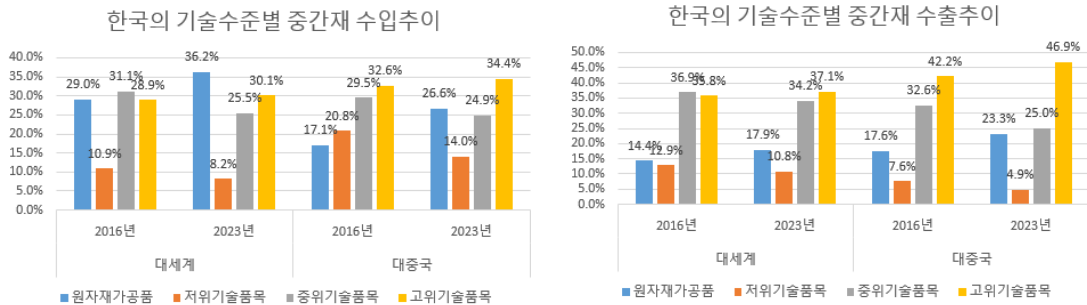


수출의 경우 역시 원자재가공품과 고위기술품목 중심으로 증가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위기술품목과 중위기술품목들의 경우 대세계 및 대중국 모두 하락 추세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품목의 기술수준이 양극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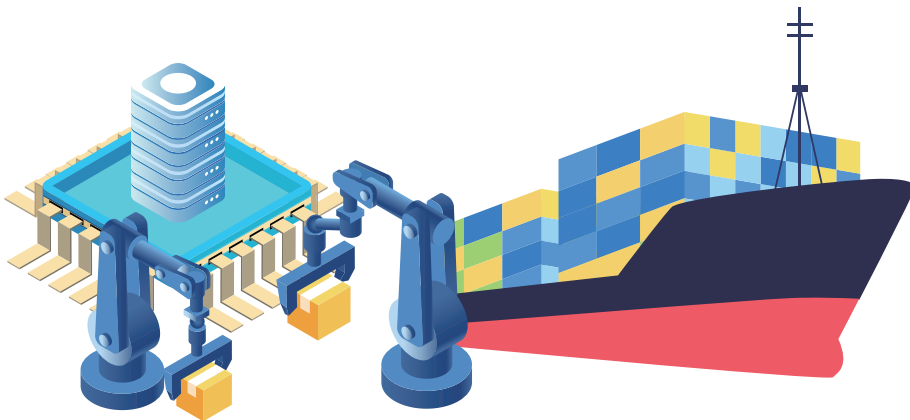
특히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원자재가공품은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유분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재가공 후 수출하는 양극재 등으로 확인되었고 고위기술 중간재 품목은 대부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품목이 차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2023년 중간재 수출 비교에서 수출비중은 고위기술품목이 높지만 수출증가율은 원자재가공품이 높게 차지하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부터 원자재 가공품을 수입하여 고위기술품목으로 재가공 후 수출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산업별 교역현황 분석에서 기존의 수출우위 산업이었던 기계류 및 전자전기제품 산업군이 수출입경합 산업군으로 바뀌고 있는 것 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림 4 한국의 기술수준별 중간재 수출입 추이



자료: KITA 트레이드 포커스 24년 24호



3. 한-중 FTA 활용현황

(1) 연도별 FTA 활용현황

한-중 FTA 발효이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FTA 활용현황을 검토해 보았다. 대중 수출입 실적은 무역협회 무역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FTA 수출입실적¹⁾ 및 FTA 활용률²⁾은 관세청 FTA 특혜무역 활용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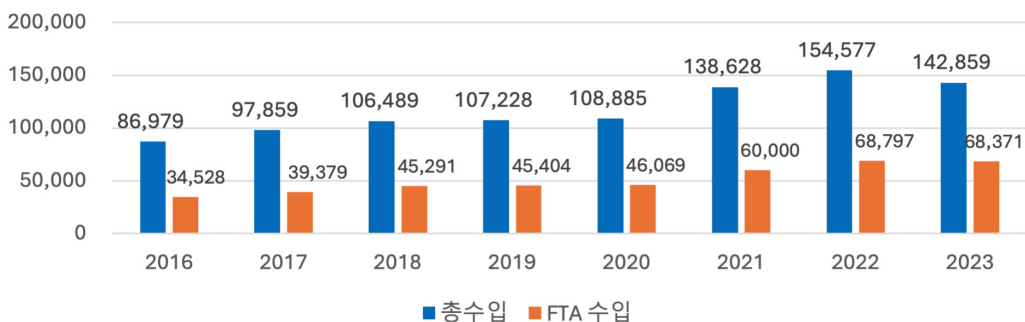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총수입과 FTA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총수입이 2016년 약 870억 달러 규모에서 2023년 1,428억 달러로 약 64% 증가하였으나 FTA 수입은 2016년 345억 달러에서 2023년 683억 달러로 98% 증가하여 FTA 수입 증가 효과가 두드러진다.

FTA 수입 활용률은 2016년 58%에서 2023년 약 91%로 FTA 발효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 이후부터는 활용률이 평균 86%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중국산 상품에 대한 FTA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FTA 수입 비중은 연도별 평균 약 43% 수준으로 연차별로 비중 편차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산 상품에 대한 시장개방 수준이 연차별로 적정하게 안배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연도별 총수입 대비 FTA 대상 수입 비교

(단위: 백만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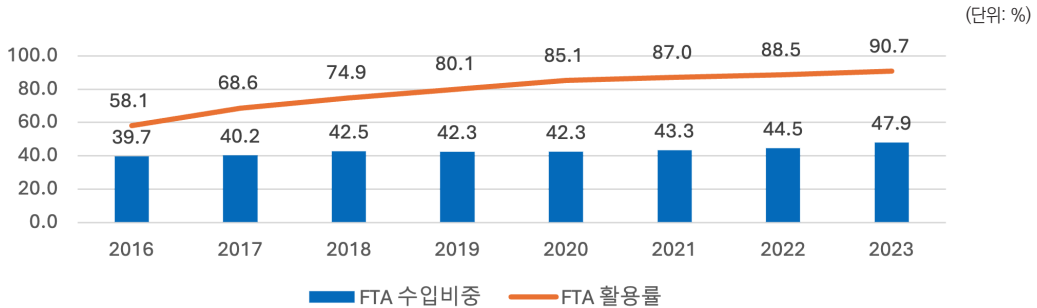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통계 바탕으로 저자 작성

1) FTA 특혜관세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수출입 실적을 의미한다.

2) FTA 활용률은 FTA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특혜대상품목에 대해 FTA 원산지 증명서가 얼마나 발급되었는지 백분율로 환산한 통계를 의미한다.



그림 6 연도별 FTA 수입활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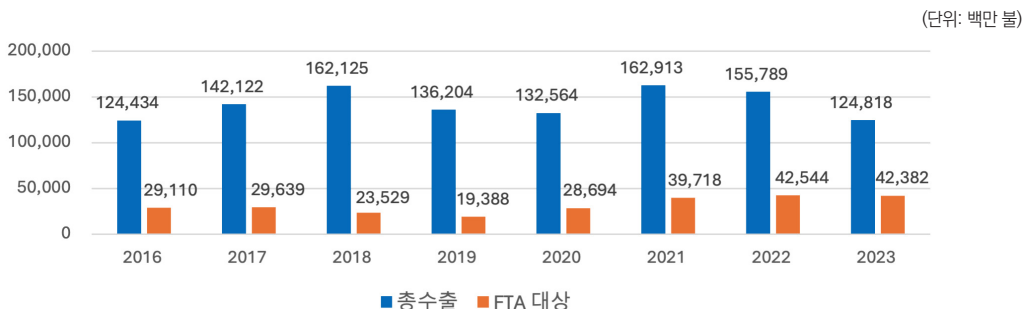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통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국으로 총수출은 2016년 1,244억 달러에서 2023년 1,248억 달러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FTA 대상품목의 수출은 2016년 291억 달러에서 2023년 423억 달러로 약 46% 성장하였다. 수출의 경우 수입처럼 총수출과 FTA 수출이 모두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연차별로 FTA 대상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장개방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FTA 수출 활용률은 발효초기인 2016년 34%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지속 증가하여 2023년 73% 수준까지 높아졌다. 다만 중국산 상품에 대한 FTA 수입 활용률이 연평균 86%인 것에 비하여 한국산 상품에 대한 FTA 수출활용률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중 수출기업의 FTA 활용환경을 재점검 하고 관련 지원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FTA 수출 대상 비중은 연평균 23%로 다소 낮고 수입대비 연차별 비중 편차가 다소 있다. 이는 대중 수출에서 이미 무관세 품목인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관련장비 등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보이며 중국의 관세정책 상 매년 잠정세율 변동도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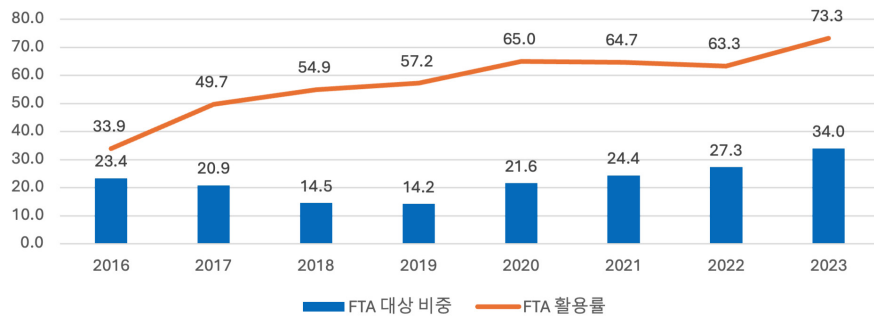
그림 7 연도별 총수출 대비 FTA 대상 수출 비교



자료: 관세청 통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8 연도별 FTA 수출활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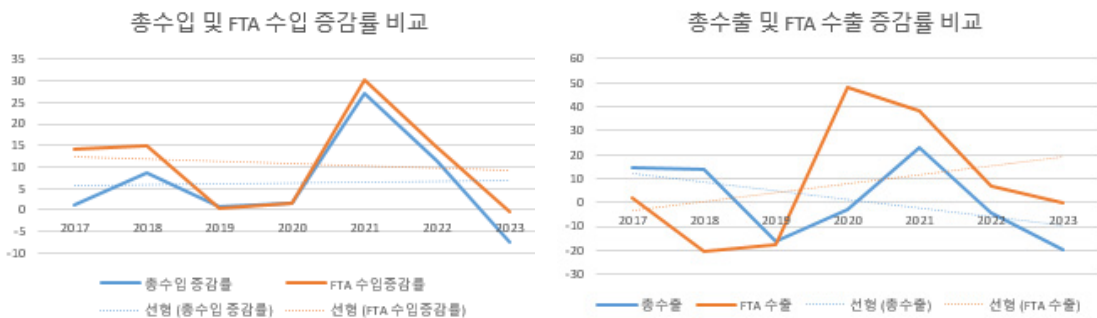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관세청 통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9 연도별 FTA 수출입 증감률³⁾ 비교

(단위: %)



자료: 관세청 통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9 연도별 FTA 수출입 증감률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의 경우 지속적으로 총수입 증감률보다 FTA 수입 증가율(2019년제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에서는 발효초기(2016년~2019년) FTA 수출 증가율은 총수출 증가율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발효 중반부터 현재까지(2020년~2023년)는 총수출 증가 폭 보다 FTA 수출 증가 폭이 확연히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연차별로 관세양허 수준이 커지면서 FTA 특혜 대상의 품목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과의 교역에서 FTA 발효이후 총교역 규모의 확대는 저조한 수준이지만 FTA 특혜 대상품목의 수출입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FTA 시장개방 효과가 있는 품목 중심으로 무역증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아 이러한 FTA 수출증가가 최근의 대중무역 적자에 방어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입의 경우 총수입과 FTA 수입 증감률의 편차가 적지만 수출의 경우 총수출



과 FTA 수출의 증감률 편차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수출에서 FTA 무역의 효과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산업별 FTA 활용현황

산업별 총수출의 증감률과 FTA대상 수출의 증감률을 비교해 보면 연도별 관세양허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농림수산물과 섬유류의 경우 총수출의 증감변동은 연차별로 편차가 크지 않지만 FTA 수출의 증감변동 폭이 크고 최근 3년 FTA 수출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농림수산물과 섬유류는 관세양허에 민감한 산업군으로 단계적 관세 철폐를 통해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한다.

기계류는 총수출의 증감률이 연차별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로 대중국 수출 하락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FTA 수출증감률은 2018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는 증가추세에 있다. 기계류의 대중 수출 하락 기조에도 불구하고 FTA 수출을 통해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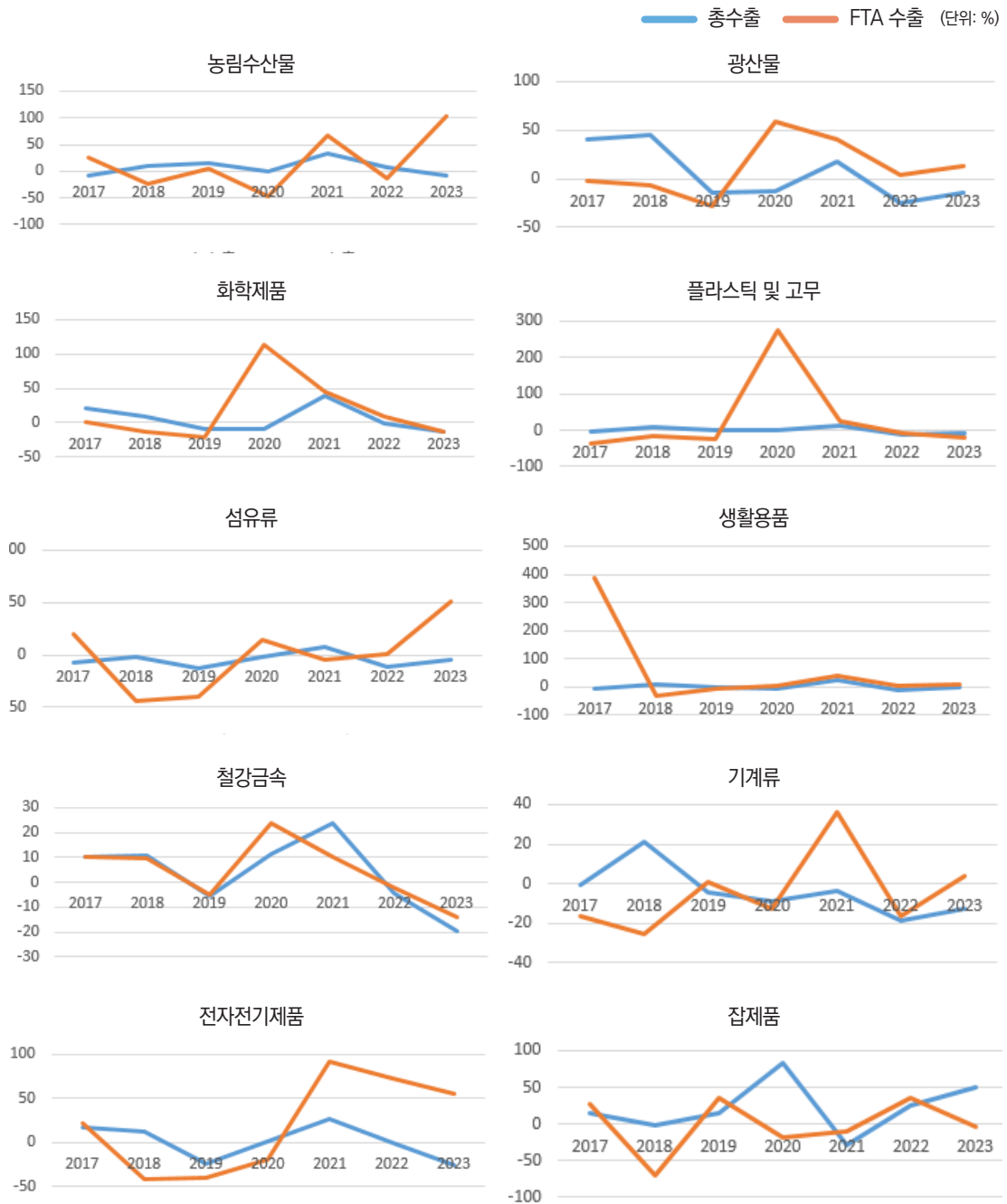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총수출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0년 이후부터 FTA 수출은 상승 기조에 있다. 전자전기제품이 수출입 경합상품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FTA 수출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기계류와 마찬가지로 FTA를 통한 수출 방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대산업을 기준으로 한-중 FTA 발효이후 연차별 수출입 활용률을 분석해보았다. 수입의 경우 전 산업이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FTA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어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FTA 활용은 매우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수출활용률은 산업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된다. 2023년 기준 농림수산물·광산물·화학공업제품 등의 FTA 수출활용률은 8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섬유류·생활용품·전자전기제품의 FTA 수출 활용률은 50% 이하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수출비중이 큰 기계류와 전자전기제품의 FTA 활용수준이 다소 낮으므로 이에 대한 활용률 저조 원인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산업별 총수출 및 FTA 수출 증감률 비교



자료: 관세청 통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1-1 산업별 FTA 수입활용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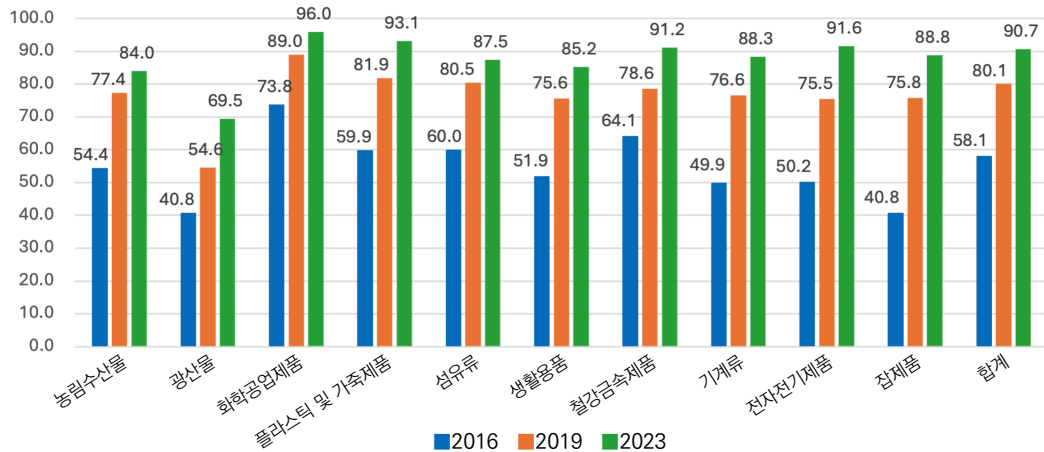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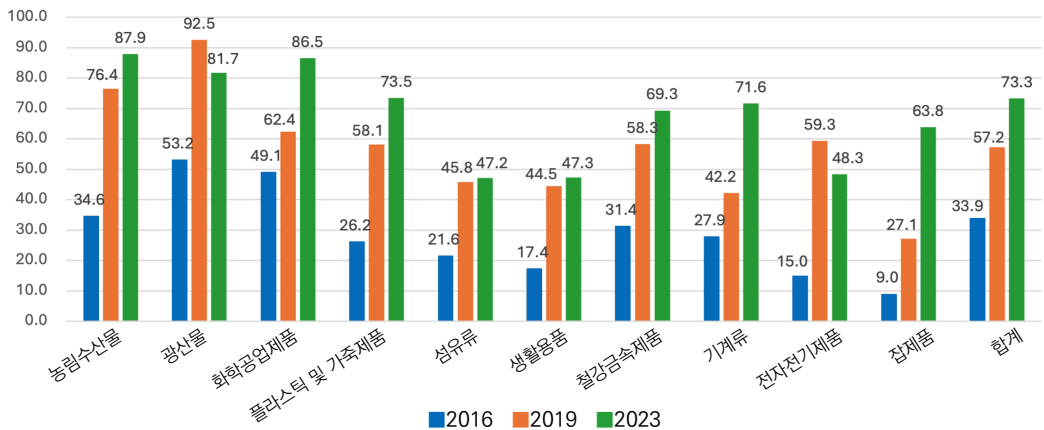


그림 11-2 산업별 FTA 수출활용률 추이

(단위: %)



(3) 수출 상위 30대 품목의 FTA 활용현황

한-중 FTA 발효이후 품목별 누적 수출액 기준으로 상위 30대 품목을 선별하여 연차별 FTA 활용현황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품목별로 FTA 활용이 없는 품목이 다수 존재하고,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FTA 활용이 증가하는 품목군, 여전히 FTA 활용이 저조한 품목군 등으로 유형이 구분된다.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컴퓨터, 동광의 경우 기존에 이미 무관세 품

목들인 경우가 다수이다. 대중 수출의 30%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 품목들의 경우 이미 무관세 품목으로 FTA 효과가 없다. 중국의 FTA 수출활용 효과가 다른 FTA 국가들과 비교하여 저조한 이유는 이처럼 대중 수출 비중이 큰 품목들의 시장개방 효과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합성수지 기초유분, 석유화학 중간원료, 반도체제조용 장비, 플라스틱제품 등의 품목은 2016년 FTA 발효이후 연차별로 꾸준히 FTA 활용이 증가한 품목들이다. 특히 합성수지·기초유분·석유화학 중간원료는 발효 초기 60% 내외 수준에서 2023년 90% 이상으로 고효용 품목으로 올라섰다.

염료 및 안료의 연도별 FTA 활용률은 매우 저조한 편이지만 연차별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 염료 및 안료의 FTA 활용은 세부 HS code 및 기업별로 활용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고효용 기업과 미활용 기업으로 양분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미활용하는 기업들도 중소기업보다는 중견 대기업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FTA 활용능력이 부족하기 보다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FTA 활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동기 및 펌프는 연도별로 활용률 편차가 다소 있으나 대체로 60% 내외의 활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동 품목은 다른 수출 상위 품목과 비교하여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비중이 큰 특성이 있어 기업별 FTA 활용환경에 따라 FTA 활용률의 편차가 다소 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1 대중 수출 누적 상위 30대 품목의 연도별 FTA 활용현황

(단위: %)

	품목명(MTI3) ³⁾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	반도체	100.0	0.0	-	-	-	-	3.6	-
2	합성수지	60.3	65.1	67.1	73.6	79.3	84.6	83.7	92.1
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7.9	14.6	25.7	59.6	57.1	56.6	12.4	63.1
4	석유제품	58.3	59.3	90.0	92.7	93.7	93.3	96.9	82.7
5	무선통신기기	45.8	70.9	34.1	52.0	48.3	-	23.8	0.1
6	정밀화학원료	30.3	46.9	50.0	69.6	58.8	57.7	81.2	90.9
7	기초유분	64.4	69.1	82.0	76.9	81.9	87.1	80.8	93.9

3) 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산업별 품목별 수출입 분류체계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동향 분석을 목적으로 분류한 6단위의 코드이다. 비슷한 종류의 수개의 HS 코드를 묶어 코드와 품명을 부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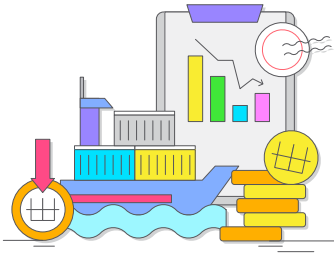


	품목명(MTI3) ³⁾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8	석유화학중간원료	61.0	55.9	91.9	87.1	93.7	80.7	84.2	90.0
9	광학기기	27.1	26.6	25.3	-	-	12.2	30.3	90.4
10	비누치약및화장품	20.3	24.9	21.3	23.7	41.1	36.7	36.5	52.8
11	반도체제조용장비	20.9	9.5	10.7	16.4	33.4	33.4	47.1	72.7
12	철강판	51.0	52.4	57.1	63.5	69.7	55.2	52.8	63.4
13	동제품	31.4	34.8	40.3	63.2	65.8	51.8	47.5	58.4
14	플라스틱 제품	56.1	60.9	60.8	58.4	64.3	64.7	63.4	73.7
15	컴퓨터	17.1	3.8	9.3	-	-	-	-	-
16	계측제어분석기	52.3	26.6	35.8	59.2	49.8	46.1	53.0	69.1
17	기구부품	12.3	90.9	-	-	-	-	-	-
18	자동차부품	47.7	57.6	67.0	58.5	61.0	45.9	52.5	80.0
19	기계요소	65.2	66.8	65.5	60.5	69.7	62.7	63.4	76.0
20	원동기및펌프	51.4	64.0	55.9	50.9	52.3	49.2	43.7	65.2
21	기타석유화학제품	59.0	71.9	57.7	51.1	62.3	57.2	70.3	93.3
22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	-	-	-	-	-	-	-
23	기타기계류	21.3	32.9	16.7	42.2	48.0	64.6	64.8	85.7
24	알루미늄	11.0	18.1	21.3	38.6	42.0	39.8	65.2	94.9
25	동광	-	-	-	-	-	-	-	-
26	사진영화용재료	18.1	24.8	23.2	24.9	18.6	12.2	13.9	26.5
27	염료및안료	14.4	18.8	10.8	9.4	9.9	16.5	35.6	33.7
28	주단조품	52.8	56.5	50.5	46.0	41.2	31.3	26.5	60.1
29	합성고무	95.9	97.4	96.0	95.4	97.5	96.9	96.0	96.5
30	산업용 전기기기	-	46.4	52.4	38.7	30.2	53.5	46.9	71.7

자료: 관세청 통계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중국의 관세율 구조분석과 FTA 활용

수출 기업에게 있어 상대국의 관세율 변동은 상품의 가격경쟁력과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한 수출전략 요소이다. 중국은 특수하게 잠정세율 적용품목을 매년 공표하고 있어 대중 수출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잠정세율이 있는 품목의 경우 MFN(Most Favored Nation)관세율 보다 잠정세율이 우선 적용되므로 매년 변동되는 잠정세율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잠정세율이 한-중 FTA 협정세율·RCEP 협정세율·APTA 협정세율과 같거나 낮은 경우에도 잠정세율이 적용되므로 FTA 활용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

2024년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관세율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의 MFN 관세율은 10%미만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중 무관세 품목의 비중은 11.6%로 나타난다.

표 2 중국의 MFN관세율 구간별 품목 비중

MFN유형	HS 개수	비중
0%	1,081	11.6%
5%미만	1,995	21.3%
5%이상~10%미만	4,155	44.4%
10%이상 20%미만	1,729	18.5%
20%이상 30%미만	265	2.8%
30%이상 40%미만	41	0.4%
40%이상 50%미만	19	0.2%
50%이상	37	0.4%
종량·복합세율	32	0.3%
총합계	9,354	100.0%

더불어 2024년 한-중 FTA 세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FTA 이행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금년에 완전철폐되는 품목이 30%로 매우 높다. 또한 전년대비 FTA 세율이 인하되는 품목도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2024년 이후 대중 수출 시장개방의 효과는 점차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2024년 한-중 FTA 세율 변화유형

유형	품목수	비중
24년 완전철폐	2,764	30%
전년대비 인하	1,866	20%
전년대비 동일	4,724	51%
총합계	9,354	100%



또한 중국의 관세율표에서 잠정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총 1,010개로 대중 수출 시 잠정세율과 한-중 FTA 세율, RCEP 세율, APTA 세율을 비교하여 기업에게 유리한 세율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년 기준 잠정세율이 적용되는 품목(1,010개) 중에서 잠정세율 적용이 유리한 품목은 554개이고 잠정세율이 아닌 FTA 세율 등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품목은 454개로 파악되었다. 잠정세율 적용이 유리한 품목은 잠정세율이 FTA 세율보다 낮거나(129개), 잠정세율과 FTA 등 협정세율이 같거나(323개), 한-중 FTA 미양허품목(102개, 주로 제44류 목재와 48류 종이와 대부분)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대중 수출기업들은 매년 변동되는 잠정세율과 FTA 등 협정세율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FTA 활용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분석한 바와 FTA 수출활용률은 수입활용률보다 저조한데 이는 기존에 무관세인 품목의 수출비중이 큰 원인도 있지만, 잠정세율 적용품목이 전체 품목의 약 11%를 차지하고 매년 잠정세율의 변동이 FTA활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4.

나가며

최근 대중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023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5월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개시되었다. 양국은 1단계 상품협상을 발판으로 2단계 문화·관광 및 법률 시장 개방 등 추가적 시장개방과 통상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FTA 이행 10년 차를 맞이하여 한-중 FTA 발효 전후 대중교역 변화 현황과 요인을 되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FTA 교역의 변화도 함께 점검해 보았다.

분석결과 한-중 FTA 발효 전후 지난 10여년 간 대중 무역구조가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대중 수입은 증가하고 수출은 감소하여 대중 수입 의존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통적 수출우위 산업군(기계류 및 전자전기제품)이 수출입 경합 산업군으로 전환된 특징을 보였다.

이는 최근 중국기업이 적극적 해외투자를 통해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중국의 제조업 수요가 위축됨과 동시에 첨단산업 분야 기술수준이 향상되면서 양국간 고위기술 중간재 생산을 위한 원료가공품과 품목들의 수출입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FTA 활용현황을 연차별,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한-중 FTA는 수출보다 수입 활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년 전산업에 걸쳐 수입활용 수준은 상승하고 있으나 수출활용 수준 상승은 다소 더딘 상황이다.

FTA 수출활용률이 다소 저조한 이유는 대중 수출비중이 큰 품목들(반도체 등)이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점과 중국의 잠정세율 적용에 따라 FTA 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들이 다수 분포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중 총수출의 감소폭이 큰 것과 비교해 주요 경합산업군(기계류, 전자전기 제품)의 FTA 수출과 활용률은 증가하고 있어 FTA 활용이 대중 수출의 감소를 그나마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는 중국의 산업구조와 소비동향 변화에 따라 상호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시장의 수요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중국의 소비가 의료기기, 2차전지 제조용 장비, 기호식품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품목의 트렌드를 사전에 포착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FTA 발효이후 대중 교역규모의 폭발적 성장은 없었지만 FTA 활용을 통해 양국간 경합품목의 시장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감소 폭을 방어하고 있으므로 FTA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겠다.

금년부터 한-중 FTA 중장기 관세철폐 품목이 완전철폐 되었고 RCEP 관세율도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있는점, RCEP의 연결원산지증명과 원재료 누적기준을 활용하면 여전히 대중 수출에서 FTA를 통한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기업들은 FTA 활용으로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FTA TRADE REPORT